

‘공연을 넘어 나눔으로... 남구거리음악회 사회공헌 특별 무대’

-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 선보여 -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오는 6월 19일(금) 오전 10시,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남구거리음악회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공헌(CSR) 연계 특집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특집 공연은 기업 및 기관의 사회공헌(CSR) 활동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도다.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래문화재단은 그동안 남구거리음악회를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다. 재단은 이번 CSR 특집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나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남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거리음악회는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도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대표 거리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